

작은천사들 기부 줄이어

전주시 '엄마의 밥상' · '지혜의 반찬' 등 후원

천사의 도시 전주에서는 소외계층을 위해 다양한 복지사업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줄을 잇고 있다. 전주는 지난 2000년부터 해마다 '농동 얼굴 없는 천사'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익명기부를 이어오며, 따뜻한 온정이 넘치는 '천사의 도시'로 불려왔다.

전주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추진한 각종 복지정책들이 시민들과 지역 기관·단체의 후원의 손길이 더해지며 더욱 풍성해지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민선 6기 시 대표사업인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에는 사업 시행 후 아침밥을 굶은 아이들에게 따뜻한 아침도시락을 함께 차리기 위한 기관·단체·기업·개인 후원자의 손길이 줄을 잇고 있다.

엄마의 밥상을 함께 차리겠다고 나선 시민들은 지난 2014년 8월 한 옥마를 내 한 익명의 사업자의 2000만원 기탁을 시작으로 지난 5월까지 정기기탁과 기관 등의 성금기탁이 이어지며 현재까지 총 3억5800만원의 후원금을 기탁했다.

특히 '엄마의 밥상'에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복지정책으로 소개되면서 소외계층 아동들을

위한 따뜻한 밥상을 함께 차리기 위해 수십년간 정기적으로 후원해 왔다는 후원자도 등장했다.

엄마의 밥상에 이어 마음의 양식을 채우는 '지혜의 반찬' 사업에도 지난 4월 첫 번째 후원기관인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에 이어 꾸준히 후원기관이 나타나면서 현재까지 5개 후원기관이 아동들에게 도시락을 후원기로 했다.

최근에는 생리대를 구입할 돈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여학생들의 소식이 알려지며 생리대 후원에 나서는 등 따뜻한 천사의 손길이 줄을 잇고 있다. 현재까지 모금에 참여한 개인 및 단체는 전주시 어린이집 통합연합회(회장 김대기)와 정현종합건설(대표 김국현), 법무법인 율우 등 개인후원 1명과 단체 3곳으로, 총 605만원의 성금을 엄마의 마음을 담아 전주시에 전달했다.

또한 NH농협은행 전주임주지부과 한국주택금융공사전북지사, 은누리내과 등 3개 기관은 일 정금액의 후원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해, 폐지수거 어르신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사는 건강이 취약한 폐지수

거 어르신 40명에게 MRI 등 정밀 검사를 동반한 건강검진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앞서 전주시는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온정이 넘치는 '천사의 도시'로 불려왔다. 이는 지난 2000년 4월 한 초등학생을 통해 58만4000원이 든 폐지수거통을 보낸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5033만9810원을 기부하는 등 16년째 성탄절을 전후해 총 17차례에 걸쳐 남몰래 총 4억4764만1560원을 보내 온 '농동 얼굴 없는 천사'가 있기 때문이다.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천사의 손길도 생겨났다. '대사습천사'로 불리는 한 익명의 후원자는 국악의 발전을 기원하고 전주대사습놀이의 성공개최를 위해 지난해와 올해 각각 1억6100만원씩 총 3억 2200만원을 기탁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농동 얼굴 없는 천사의 선행이 알려지며 '천사의 도시'로 불리고 있는 전주에 '엄마의 밥상' 등 각종 복지사업에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알리지 않고 후원에 참여하는 천사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시민들이 배운 온정의 손길을 잘 전달해 단 한 사람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는 사 람의 도시 전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효사랑요양병원 주차장 증축 '갈등'

주민들 교통대란·일조권 침해·사생활 노출 우려 완산구 문제점 보완 반례에 병원측 행정심판 청구로 맞붙

효사랑요양병원 장례식장 영업을 둘러싼 효자2동 주민들과 갈등이 장례식장 건물 주차장 증축 문제로 옮겨 붙고 있다.

〈본보 6월 10일자 4면〉

13일 전주시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효사랑요양병원은 완산구청에 신청한 주차장 증축 허가 반례에 전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놓은 상태다.

효사랑요양병원은 도심 주택가 한복판에 장례식장 영업을 추진해 지역 주민들과 격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장례식장 상층부에 다시 2층 높이로 철구조물 형태의 주차장 증축을 추진,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효자2동 주민들은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주변 도로 사정에 경사도 가파른 비탈길에 자리한 효사랑요양병원 주차장이 2층 높이로 높아질 경우 주변 교통은 극심한 정체 현상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최승화 효자2동 장례식장 결사반대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장례식장을 운영하는데 주차공간이 부족해 건물을 증축하고 주차장을 늘리려는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며 "완산구청 건설과에서 교통정체 등 문제점을 제기해 병원의 주차장 증축 허가를 반례했는 데도 전북도청에 행정심판을 신청,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주차장 시설이 마을 주택보다 높아지면 일조권 침해는 물론, 주민들의 사생활 노출도 피할 수 없다"며 "가뜩이나 가파른 비탈길로 겨울철이면 도로가 결빙돼 교통사고 위험이 높는데 병원 장례식장 영업 편의를 위해 2층 높이의 주차장이 증축되면 주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완산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병원에서 높이 8m, 2계층, 넓이 30m, 길이 70m의 철근구조물을 증축한다고 신청했지만 교통관련 기관과 협의해 교통시설 설치 등 검토가 필요해 반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에서 1차 보완서를 제출했지만 신호수 배치, 교통안내 입간판 활용 등 임시방편적인 해결책뿐이어서 반례할 수밖에 없었다"며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내부적으로 재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장례식장 반대 추진위는 "병원 측에서 2층 증축이 안 될 경우 1층만 올리는 건 어떠냐는 제안을 했다"며 "어떻게든 장례식장을 운영해보려는 속셈이 훤히 보이는데 병원 측이 행정심판을 통해 증축을 시작한다고 해도 건설 차장 진입을 막아서는 등 적극적으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완산구청에서 주차장 증축을 반례하며 보완책을 요구해왔지만 납득할 수 없어 사업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들어보기 위해서 행정심판을 신청했다"며 "주민들과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 행정심판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9일 현장실사를 통해 병원 주차장 건물과 주변 환경 등을 꼼꼼히 살피고 청구인인 병원 측과 피청구인인 완산구청장, 해당 지역 주민들과도 이야기를 나눴다"며 "오는 29일 행정심판위원들이 자료를 토대로 심의를 진행해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진수 기자

'뇌물요구' 순창군 공무원 구속

공사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전기공사 업체에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순창군 6급 공무원이 구속됐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13일 수뢰 혐의로 순창군 전기직 6급 공무원 A씨(50)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이날 "검찰의 수사로 소명된 범죄사실이 가법치 않다"며 A씨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A씨가 업체 관계자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9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박용주 기자

전북경찰청 1부장에 진교훈 경무관 임명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0일 전북경찰청 신임 1부장으로 진교훈(50·사진) 경찰청 새경찰추진단장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신임 진교훈 1부장은 지난해 12월 경무관으로 승진했으며 앞으로 전북경찰의 경우, 정보화장비, 정보, 보안 등 행정지원 업무를 맡게 된다.

진 1부장은 전북 전주 출신으로 1985년 전주완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찰대에 입학해 1989년 졸업(5기·행정학과) 후 경위로 임관해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2010년 총경으로 승진하고 전북청 정읍경찰서장, 경찰청 기획조정과장, 서울청 양천경찰서장 등을 역임했다.

/안진수 기자

취업 미끼 역대 사기행각 60대 징역형

자동차 회사 취업을 미끼로 역대 사기행각을 벌인 60대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정운현 판사)은 13일 자동차 회사 취업을 미끼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6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편취금 2000만원을 배상신청인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014년 11월 전주시의 피해자 A씨의 집에서 "자동차 회사 임원을 잘 알고 있으니 아들을 정규직으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3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수법으로 김씨는 최근까지 A씨 등 5명으로부터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2억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A씨 등에게 언급한 자동차 회사의 간부를 알지도 못하면서 개인 채무 변제와 인터넷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

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합계가 2억원이 넘는 다액이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용주 기자

영화관서 소화기 휴친 70대 입건

영화관 주차장에 비치된 소화기를 훔쳐 자신의 집에 가져다 놓은 70대 노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13일 주차장에 비치된 소화기를 들고 간 혐의(절도)로 B(7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0일 오후 4시 30분께 익산시 영등동 한 영화관 지하주차장에 비치된 소화기 1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B씨는 자신의 집에 비치하기 위해 소화기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안진수 기자



가습기살균제 재발 방지책 요구

13일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가습기살균제 피해 접수현황을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한분 한분의 마음에 행복을 꽃피우는 금융생활의 따뜻한 동반자

기다리던 봄, 설렘 가득한 마음 곳곳에 행복이 전해지도록
전북은행이 따뜻한 햇살을 비추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공익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을 위한 나눔 실천

서민지원
저소득층 가정 및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학술/교육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

체육중진
문화단체 및 지역민들의 다양한 체육행사 지원

환경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환경보호 활동

